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 광주 전지역 확대

광주시 미세먼지 대책 2차 회의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취약계층 120만매 마스크 지원

광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이어 경로당에도 올해 말까지 공기청정기를 모두 보급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도 지속적으로 설치한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지

난 2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의회 부의장, 환경복지위원장, 시 기획조정실장, 시 시민안전실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5개 부구청장, 시 교육청 정책국장, GIST 교수,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학부모대표(2명), 환경운동연합,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관계·유관기관이 건의·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기관·부서의 검토(안)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시는 현재 터미널, 주차장 등 현 118곳에서 단속중인 공회전 제한을 을 상반기에 서울, 대구, 울산

에 이어 시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단속기준 시간은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해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00% 보급에 이어 경로당(1315곳) 시설에도 연내 공기청정기를 놓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자치구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 실내놀이터는 지난 2018년 12월 개관한 동구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어 지원 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부터 '영유아 플라자'가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시민대상으로 총 120만매(8억원)의 마스크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1차분 75만매(5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일괄 조달 구매해 업체선정 공고를 진행중이다. 2차분 마스크 45만매는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작되기 전 10월부터 자치구별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한다.

이용섭 시장은 "2주만에 또다시 미세먼지 총력대응 회의를 개최한 것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절감하면서 효과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 내달부터 운영

광주시 북구가 다음달부터 '떠나요! 과학소풍' '찾아가는 동네과학교실'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첨단과학골든벨' <사진> 등 '2019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떠나요! 과학소풍'은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회 운영하며 광주AR/VR(증강/가상)제작지원센터, 국립광주과학관, GIST(광주과학기술원)을 회별로 2곳씩 견학한다.

'떠나요! 과학소풍'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는 오는 27일까지 북구 경제종합

지원센터(062-410-6555)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오는 6월과 10월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 강사와 GIST 운영형 융합기술제학부 교수, 최준호 화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찾아가는 동네 과학교실'을 총 4회 운영하며, 추후 공고를 통해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오는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첨단과학 골든벨'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산악사고 대비 합동 인명구조 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일 무등산 중봉 일원에서 봄철 사고발생에 대비해 '산악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119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 항공구조구급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무등산 동부사무소 등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분부는 무등산국립공원 중봉 부근 바위에서 추락한 등산객이 다발성 골절로 위급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를 한 후 소방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문기식 119특수구조단장은 "봄철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충분히 몸을 풀어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현수막 게시대·벽보판 정비 5개 자치구에 1억여원 지원

광주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정비사업 보조금을 5개 자치구에 1억1000만원 지원했다.

각 자치구에서는 부족한 광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을 새로 설치하고 노후 시설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440개, 지정벽보판은 284개다. 앞서 지난해 5개 자치구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정비 보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해 현수막 게시대 11개가 신설·이설되고 50여개가 정비됐다. 지정벽보판은 3개가 신설·이설되고 5개가 정비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환경미화원 안전 근무환경 지원예산 3배 증액

광주시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했다.

시는 한국형청소차 교체비용, 환경미화원 사기진작비 등 4억9600만원을 5개 자치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1억5600만원이었다.

시는 지난 2017년 말 연이은 환경미화원의 작업도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선7기 차량장비 개선을 통한 안전성 제고,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준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지원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0년 이상 노후 청소차량을 한국형

청소차로 올해부터 5년간 총 34대 교체기로 하고 올해는 우선 서구 3대, 북구 2대, 광산구 2대 등 7대를 교체한다. 한국형청소차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운전석에서 4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저상탑승공간이 마련된다.

또 7월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기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남구의 노후 불법투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청소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고, 경기장 주변 및 시가지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소모품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장비 확충·보수비용도 지원한다.

해마다 지원해온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봄·가을철 체육행사 및 야외회 등도 계속한다.

이와 함께 올 1회 추경 예산에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부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추가하고, 앞으로도 시 차원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환경미화원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환경미화원에게 새벽·야간 시간대 식별하기 쉬운 야광 안전벨트를 구입해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 광주복지재단 8개 동아리 선정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8개 동아리를 선정했다.

복지재단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3개의 신청동아리 중 최종 8개 동아리를 뽑았다. 이들 예산 150-200만원의 활동비를 차등 배분했다.

선정된 동아리는 ▲고윤열매 ▲난타동아리 '오버히트'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선생님들 ▲사회복지 조례연구 동아리 ▲생명지킴이 Gate keeper ▲스마트한 복지세상 NPD ▲장애와 페미니즘 공부모임 '이월경' ▲프로로 가는 조사연구 네트워크 등으로 총 58개 기관에서 84명이 참여한다. /오광록 기자 kroh@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 경영' 우수상

광주시 남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이 정부 주관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우수 경영 사례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사진>

21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6곳이 후원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농촌 특산품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남구는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판로 확산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총

44억원 순매출을 기록, 39억원을 생산농가에 환원해 농민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소규모 생산농가를 비롯해 여성과 고령의 농민 등에게도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 256곳의 농가가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생산자는 소득 증대 및 판로 확보가 가능해졌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물건을 싼값에 믿고 구매하는 등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면서 "상생과 협력 등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평당 2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